

노무현 대통령후보 영남대 강연

■ 한국정치 현실과 개혁과제

달나라까지 가야하는데 한번 폭발해 가지고는 추진력이 부족해 보통 삼단 로켓트 쓰거든요. 삼단 점화해서 폭발하고 나면 궤도진입해 달나라까지 간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만나면서 은근히 2단 점화하는 것 같은 생각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잘 부탁한다. 3단 점화라고 해도 좋다 꼭 점화해달라.

역사를 말하고 싶다. 해답은 역사에 있다. 역사에서 해답을 찾자고 말하고 싶다. 세상을 바꾸자. 어떻게, 누가 바꾸나. 제도를 바꿔야한다. 제도를 바꾸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 생각은 교육을 잘해야 달라진다. 교육은 누가 시키나.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기득권이 교육을 지배해왔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기존의 질서를 주도하는 사람이 교육시키니 그 교육받고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람의 생각은 교육 이외에는 역사로 만든다. 역사의 경험이 우리의 사상을 형성하는 가장 결정적 기초다. 일제시대를 경험했던 사람들 6․25 경험했던 사람들은 생각이 여러분과 한참 다르다. 다른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 가치 윤리가 무너졌다고 한다. 왜 그런가. 우리 역사 속에서 정

의의 깃발을 들었던 사람 중 승리하고 그 승리결과를 자손에게 물려준 역사가 있다. 훌륭한 사람은 현실정치에서 성공한 적 없는 게 우리의 역사다. 훌륭한 사람은 김구 선생도 현실정치에서는 패배자에 불과하다. 이 역사를 갖고는 현실정치에서 정의에 서기 어려운 사회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왕조가 바뀌면 우리나라 왕조가 바뀌고 정변이 일어났다. 그래서 큰나라에 기대어 살수밖에 없다는 변방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어릴때 나쁜 짓 하면 저놈은 조선을 망하게 하고, 대국 망하게 할 놈이라고 했다. 가치에 있어서 조선과 대국은 하나고 현실에서 대국은 종주국이라는 것이다. 대선후보 될 때 미국이 본 적 있냐고 물을 때 바빠서 못 갔다고 했다. 실제로 그랬다. 노동위에서 미국에 갈 일 있었나. 미국한번 못 갔다고 반미주의자인가. 또 반미주의자면 어떤가. 여러분이야 관계없지만, 대통령이 될 사람이 반미주의자면 국익에 큰 어려움을 줄 수도 있겠네요. 클린턴은 한국 한 번 안 다녀와도 대통령 되는데 문제없었을 것이다. 고이즈미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머리 속에 당연한 것처럼 박혀있는 의식구조가 우리역사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같은 고민, 같은 노력해온 사람들 속에서도 그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어떻든 세상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은 역사에서 비롯된다. 세상을 바꾸고 생각을 바꿀려면 역사를 바꿀 수 밖 없다. 지난 역사 새 해석하고 앞으로 만들 역사에 대해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한다. 과거 역사 지속되게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과거역사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고 앞으로 역사를 잘 준비해야한다. 역사를 다시 쓰자. 그래서 역사를 다시 만들자고 말하고 싶다.

내가 살고싶은 나라 이게 한국이 만들어야 하는 나라다. 이것을 어렵게 이

해하질 말자. 경제는 중요하다. 그래서 잘사는 나라 만들어야한다. 그러나 돈이 전부는 아니다. 돈만으로 반드시 행복한 나라만드는 것은 아니다. 또 혜택을 가급적 많은 사람이 더불어 함께 누리면 사는 나라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아주 중요. 몇몇한 국민 당당한 나라 국제적 관계에서 국가와 시민을 위상을 이렇게 생각해 봤다.

경제에 관해서는 성장은 필요 없고 분배만 하냐고 하지만 저는 지금의 속도와 방향을 갖고 이야기해야 한다. 지금의 속도정도로 성장은 계속하자 그러나 분배 좀 더 신경 쓰고 복지지출을 좀더 강화하자는 이야기할 수 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투명한 경영 위한 것이 모두 잘사는 나라 만들기 위한 것이다. IT, BT, ET 이야기하고 디자인 산업이야기 모두가 잘 살자는 이야기다. 실제로 어느 정당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한국이 잘사는 나라되기 위해 무엇을 할까. 시간이 다 되버렸네.

잘사는 나라 위해서는 시장질서 제대로 만들어야한다. 독점적이고 불공정한 시장이 아니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이다. 정보의 폐쇄독점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 시장이 첫번째로 중요한 조건이다. 그것 말고 한국이 더 뺏어 나가야 할 목표가 있다면 시장을 넓히는 것이다. 남북경제 활발히 이뤄지고 남북대화 성공 통해, 동북아 협력, 화해 그리고 경제적 공동체적 질서를 내다보는 시대로 가면 대체로 동북아시아가 7억 시장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시대로 나가기만 하면 한국이 과거 여러 가지 대외적 특수 누렸던 것처럼 21세기에 새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내부적 경쟁력강화 대외적 시장확대로 새시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국력확장을 생각한다면 새로운 동북아시아 열자고 말하고 싶다. 이것을 이제 한국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화두로 결정하자. 이것은 남북관계의 성공에 성패가 달렸다. 남북관계가 성공하지 못하면 이 시대는 오지 않는다. 이 질서를 성공시키려면 중국과 일본한국 포함하는 동북아에서 불신과 대결,

이로 인한 군비경쟁하는 질서를 제어할 수 있다. 그러면 동북아의 안보적 상황이 현저히 바뀔 것이다. 중일의 군비경쟁허용하면 한국의 선택도 군비강화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중국의 인구나 국력이 너무 막강하다. 일본도 막강하다. 이 질서 속에서 군비경쟁으로 대응하는 것은 대단히 성공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이다. 그러면 한국은 양국이 군비경쟁의 질서가 아닌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야한다. 군비경쟁이 되면 한국은 중일중 한나라를 선택을 고민하는 시기가 될 수밖에 없다. 줄서기 눈치보다 국권을 잃어버린 역사를 반복할 수 있다. 선택을 위해 눈치를 살피고 어느 쪽에 기대자는 것을 놓고 국민사이에 또다시 분열시킬 수 있다. 그래서 남북문제는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특권이 문제되고 있지만 10년 뒤에는 나아질 것이다. 20년 뒤 여러가지 상황은 다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 남북문제 풀리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경제를 포함해 한국사회가 살만한 나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우리는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실마리를 이야기하면 간다. 한국은 간다. 지금까지 한국이 끊임없이 자유당 독재 때문에 48228;19했는데 분열로 실패했고 58228;16, 5공 등 끔찍한 기억 속에 살아왔다. 민주화운동 시작했다. 뭔가 짜증스럽고 안되는 것만 기억해 왔는데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역사를 밝은 방향으로 다시 돌이켜보자고 생각. 조선일보와 사이좋지 않지만, 조선일보 식으로 보자. 이렇게도 생각해 봤다. 자유당을 적어도 해방과 건국의 시대로 평가할 수 있다. 국가독립을 그럭저럭 유지했다. 내전 속에서도 국가라는 정치체제 지켰다. 그 이후에는 산업화시대고 3김이 나라를 다 말아먹은 것 같지만 3김의 시대도 민주화의 시대다. 세시기 거치며 한국이 이만큼 발전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건국→산업화→민주주의시대다. 네번째는 함께 해답을 만들어야한다. 지금부터 역사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함께 합의해야 한다.

3시대 거쳤지만 해결하지 못한 역사가 있다. 분열의 역사다. 과거에도 그

렸고 적어도 해방후 분열과 분단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상실했지만 그 분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독재의 시대에 특권과 부정부패가 생겼다. 이 시대의 정치는 권위의 정치시대다. 사회구조는 피라미드 구조고 사고방식도 수직적 사고방식이다. 아직도 사회발전 발목 잡는 요소다. 분열을 극복하자 그러면 다음시대는 통합의 시대가 될 것. 어떻게 하면 통합의 시대되나. 편을 만들지 말자?.불가능하다. 모든 사회는 편이 있다. 집단간의 생각 이해 정서가 다르게 돼있다. 편싸움의 주도권 다툼은 끊임없이 있을 것. 편 다툼을 전쟁이 아닌 게임으로 만들어야한다. 민주주의를 기초로 하는 승자패자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면 분열극복할 수 있다.

민주당 시끄러운데 규칙대로 하면 시끄러울 것 하나 없다. 합리주의 사회로 가자. 경제의 효율적인 성장, 보다 민주화, 보다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바뀌어야할 일 있다면 합리적인 제도로 바꾸자는 것이다. 목표가 합리주의면 과정은 개혁이다. 통합의 시대 내용은 합리주의 시대라야 한다는 것이다. 합리적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개혁을 해 의식과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다음시대도 개혁의 시대라야 한다. 대외적으로 환경을 바꾸는 것은 동북아 신질서를 창조하는 것이다.

개혁이라는 말속에 모든 것이 있다. 개혁의 목표는 보다 민주화 투명화 공정한 사회이다. 이것이 다음세대의 역할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역사가 바뀐다. 그것은 새로운 역사다. 우리사회를 이렇게 바꾸는 것이야말로 역사를 바꾸는 것이 이런 새 역사에 자란 사람들이 다음시대를 새 시대를 만들 수 있는 주체가 된다.